

지역 소식통

공공기관 청렴도평가
고창군, 도내 최고등급

고창군은 국민권익위원회가 발표한 '2020년 공공기관 청렴도 평가 결과'에서 2년 연속 도내 최고등급인 '2등급'을 받았다고 29일 밝혔다.

특히 2018년 종합청렴도 평가 3등급에서 민선7기 1년차 평가인 2019년도 종합청렴도 2등급에 이어 2020년도 평가에서도 2등급을 달성해 2년 연속 도내 최고등급을 차지했다.

앞서 고창군은 민선 7기 들어 군민이 알기 쉬운 공감행정을 위해 '행이근민'을 행정철학으로 내걸고 군민과 소통해 왔다. 여기에 1부서 1청렴사례, 청렴 마일리지제, 부서별 청렴 다짐 행사 등 각종 반부패 시책 추진을 통해 군 인파에서 청렴문화 확산에 애써왔다.

올해 청렴도 측정은 지난 2019년 7월1일부터 올해 6월30일까지 1년 동안 외부청렴도와 내부청렴도, 감점요인을 적용해 종합청렴도 점수를 산출한다. 외부청렴도는 공사 관리·감독 등 4개 분야의 측정대상 업무를 경험한 민원인을 대상으로 한다. /고창=김영식 기자

고창군 지사협, '효' 실천
어르신 찾아건강 체크 등

고창군 지역사회보장협의체(공동위원장 유기상, 김현기)가 100세 어르신인 만수무강을 축하하기 위해 어르신들을 찾아 뵙고 감사 인사를 전하는 시간을 가졌다.

앞서 고창 지사협은 어르신에 대한 효를 실천하고 화합과 소통의 시간을 마련할 수 있도록 100세 어르신 만수무강을 축하하는 마을 잔치를 추진할 예정이었다. 하지만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행사를 취소하고 겨울이불 전기매트 등의 연계물품을 전달하고 어르신들의 혈압 등 건강을 체크하고 안부를 묻는 시간을 가졌다.

신림면 봉순임 어르신(100세)은 "코로나로 사람들 만나기가 어려워졌는데 매년 잊지 않고 찾아와 안부를 묻는 효자군수가 있어 고맙고 더 오래 건강하게 살고 싶다"고 말했다. /고창=김영식 기자

부안 군도 14호선 지방도 승격

부안읍~창북~계화 11.5km 구간... 새만금 접근성 ↑
위도~식도간 연도교 건설 등 주민숙원 해소 기대감

부안군민들의 오랜 숙원사업인 군도 14호선이 지방도로 승격되고 위도~식도간 연도교 건설에 청신호가 켜졌다.

군은 지난 28일 제8차 전북도 지방도 도로건설 관리계획이 고시된 가운데 부안 군도 14호선(부안읍~창북~계화 구간)이 지방도 705호선으로 승격됐으며 위도~식도간(지708호)은 벌금에서 식도까지 연장을 통해 연도교를 건설할 수 있는 계획이 수립됐다고 밝혔다.

군도 14호선 11.5km 구간이 지방도 705호로 승격되면서 총사업비 1242억

원의 국·도비를 투자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으며 새만금신항만, 동서2축도로, 남북2축도로 등과 연계한 물류교통망 구축을 통해 부안군민의 새만금 접근성이 높아질 전망이다.

특히 그동안 군도 14호선 창북~계화 구간은 도로 폭 협소 및 농기계 대형화에 따라 확장의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돼 왔으나 사업비 부족 등의 이유로 현재까지 사업추진이 어려웠지만 이번 관리계획에 반영돼 지역주민의 오랜 숙원을 해소할 수 있게 됐다.

위도~식도간 연도교 건설은 식도어

민들의 신속한 어·패류 유통과 위도 본섬과의 접근성 제고 등을 군의 지속적인 노력을 통해 계획에 반영됐다.

연도교 3km 구간에 총사업비 778억원의 국·도비를 투입해 수산유통기능 향상 및 오는 2022년도에 지정될 위도 유네스코 세계지질공원과 더불어 관광명소로써 거듭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게 됐다.

군 관계자는 "제8차 지방도 도로건설 관리계획에 반영된 군도 14호선의 지방도 승격과 위도~식도간 연도교 건설은 주민들의 간절한 염원과 지역 국회의원·전북도의원 협조, 전북도와 의 협업체계 구축을 통해 이뤄낸 성과"라며 "지역발전을 위해 공사 완료 전까지 모든 행정여력을 집중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부안=김석진 기자



정읍시는 구절초 테마파크 기반시설 조성사업으로 추진한 출렁다리 설치공사를 완료했다.

정읍시, '구절초 출렁다리' 준공

테마파크내 높이 24·길이 109m... 볼거리·즐거거리 제공

정읍시를 대표하는 관광지 구절초 테마공원에 출렁다리가 준공돼 눈길을 끌고 있다.

시는 구절초 테마파크 기반시설 조성사업으로 추진한 출렁다리 설치공사를 완료했다고 29일 밝혔다.

구절초 테마파크 기반시설 조성사업은 산내면 매죽리에 소재한 구절초 테마파크 내에 109m 길이의 출렁다리 설치와 탐방로 1.2km를 조성하는 사업이다.

총사업비 41억원을 투입해 2017년 10월 착공 올해 12월 준공됐다.

구절초 출렁다리는 구절초 공원의 산책코스와 연계해 관광객에게 여유로운 산책과 휴식은 물론, 다양한 볼거리와 즐길 거리를 제공한다.

특히 높이는 수면 위로부터 24m, 길이는 109m에 이르고 있어 물 위를 걷는 듯 흔들흔들 아찔한 스틸을 즐길 수 있다. 또 산내면의 수려한 관광자원인 옥정호의 넓고 잔잔한 호수 풍경을 한눈에 감상하기 좋다.

구절초 출렁다리는 야간에도 LED 조명을 활용해 은하수가 내리는 느낌을 연출하며, 관광객들에게 기억에 남는

아경을 선물할 예정이다.

1,000여 개의 LED 조명은 구조체 하부 업라이트와 내측을 비추며 은은한 야간경관을 연출해 공원 주변을 통한 분위기로 몰아간다.

또한 출렁다리는 상징성을 부여하기 위해 주탑 모형을 '꽃반지' 모양으로 형상화했다. 구절초 테마파크를 찾는 관광객에게 어렸을 적 시골길을 따라 걸으며 만든 꽃반지에 대한 유년기의 추억을 떠올리고 연인과 함께 구절초 꽃반지의 감성적인 힐링 공간을 제공하기 위함이다.

시는 코로나19로 인해 실내 활동이 어려운 시기에 볼거리와 즐길 거리, 산책할 수 있는 공간이 새롭게 조성됨으로써 비대면 시대에 시민들의 피로감을 덜어줄 수 있는 공간으로 활용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유진섭 시장은 "구절초 출렁다리가 구절초 테마공원 최고의 랜드마크로써 사계절 관광도시로의 도약을 위한 발판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향후 구절초 테마파크를 찾는 관광객들에게 추억과 감동을 선물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읍=김대환 기자

부안군, 서림공원 무장애나눔길 개방

부안군(군수 권익현)은 부안읍 서외리 산1-1번지 일원에 조성한 서림공원 무장애나눔길을 완공해 12월 30일부터 개방한다고 밝혔다.



부안군(군수 권익현)은 부안읍 서외리 산1-1번지 일원에 조성한 서림공원 무장애나눔길을 완공해 12월 30일부터 개방한다.

군은 한국산림복지진흥원이 시행한 2020년도 녹색자금 공모사업에 선정돼 무장애나눔길을 조성했다.

서림공원 무장애나눔길은 일반인은 물론 산림으로 접근이 어려운 보행약자층(장애인·노약자·임산부·영유아 등)도 편리하고 안전하게 숲체험 활동을 할 수 있는 산림복지시설로서 기존 서림공원 산책로와 유아숲체험원 등과 연계해 총 850m 구간의 데크로드 및 황토포장 산책로를 조성했다.

특히 산책로를 거닐며 서림공원에 자생하는 다양한 수목과 편백숲을 따라 부안읍내 전경을 한눈에 조망할 수 있고 봄에는 철쭉, 가을에는 꽃무릇 등을 감상할 수 있다.

또 산책로 전 구간을 보행약자층의 접근성 및 안전성을 위해 최대 경사 8% 이하로 조성하고 미끄럼 방지시설을 설치했으며 야간에도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야간경관조명을 설치했다. /부안=김석진 기자

정읍시, 도심 주차난 해소 방안 모색

주차환경개선 기본계획 보고회

정읍시가 갈수록 심각해지는 주차장 문제 해결과 지역 실정에 맞는 주차난 해소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나섰다.

정읍시는 2020년 현재 자동차 등록 대수가 5만18천 대를 초과했고 최근 5년간 연평균 2.8% 증가 추세를 보이며 주차 관련 민원과 주민 불편이 증가하고 있다. 이에 시는 29일 지역 주차난 해소와 다양한 주차정책의 수립을 위

해 '주차 수급 실태조사 및 주차환경개선 기본계획 최종보고회'를 가졌다. 지역 내 주차시설과 관련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해 주차시설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확보해 주민 불편을 해소한다는 방침이다.

이날 보고회는 유진섭 시장을 비롯해 관련 실·과·장과 7개 지역 동장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이번 주차장 수급 실태조사는 시내 지역을 7개 권역으로 나눠 진행했으

며, 동별 주민센터 순회 방문과 시의회의원 간담회 등을 통해 제시된 현실적인 대안이 제시됐다.

특히, 주차장 개선 사업으로 주차장 77개소에 주차 면수 약 2만7,700면이 개선 필요성이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조사 결과, 시민들이 필요로 하는 주차수요는 주간 1만7,777대, 야간 2만 5,869대로 주차 수급률은 주간 156%, 야간 107%를 보였다. 또 공영주차장과 부설주차장의 이용률이 저조하고 시간대별 주차 수요가 편중되어 노상 불법주차가 폭넓게 발생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정읍=김대환 기자

정읍시, '정향누리 상품권' 1월 1일부터 판매 재개

정읍시가 지난달 조기 완판으로 판매를 일시 중단했던 '정향누리 상품권'이 내년 1월 1일부터 본격적으로 판매가 재개된다.

시는 지난해 12월 지역 자급의 역외 회원 간담회 등을 통해 제시된 현실적인 대안이 제시됐다.

특히, 주차장 개선 사업으로 주차장 77개소에 주차 면수 약 2만7,700면이 개선 필요성이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조사 결과, 시민들이 필요로 하는 주차수요는 주간 1만7,777대, 야간 2만 5,869대로 주차 수급률은 주간 156%, 야간 107%를 보였다. 또 공영주차장과 부설주차장의 이용률이 저조하고 시간대별 주차 수요가 편중되어 노상 불법주차가 폭넓게 발생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정읍=김대환 기자

단, 모바일과 카드 상품권으로만 판매하고, 발행 비용이 많이 소요되는 지류 상품권(종이 화폐)은 발행하지 않기로 했다. 구매 한도는 1인당 월 70만원으로 모바일 앱 또는 농협과 전 북은행 새마을금고 등 지역 내 46개 금융기관에서 10% 할인된 금액으로 구매할 수 있다.

시는 가맹점을 연중 모집하고 있으며, 구매자들이 사용하는 데 불편이 없도록 음식점과 마트, 미용실, 주유소 등 3,500여 개 가맹점을 시 홈페이지에 게재하고 있다.

가맹점 등록은 신분증, 사업자등록증, 통장 사본을 지참하고 시청 지역 경제과 또는 가까운 읍·면사무소 또는 동주민센터에서 신청하면 된다. /정읍=김대환 기자

지구상에서 가장 빨리 뜨거워지고 있는 곳 '북극'

우리집을 지켜주세요

전문가에 따르면 자동차와 공장에서 나오는 탄소 배출량 증가로 인한 지구 온난화로 빙하들은 점점 녹고 있으며, 이는 지구에 큰 영향을 미칠 것이다. 해양 얼음의 손실은 지구가 태양 광선을 효율적으로 반사하지 못한다는 것을 의미하고, 결국 지구 온도의 상승을 초래할 것이기 때문이다.

전주매일 지구온난화 캠페인